

남양유업 나주공장, 납품원유 100% 감축 통보

전남지역 원유 생산농가 '직격탄'

지난 30일 재계약 협상 실패...무기한 집회 돌입 예정

원유(原乳) 생산과잉과 유류 소비감소로 인해 유류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남양유업 나주공장이 전남지역 납품원유를 전량 감축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30일 낙농진흥회와 나주시 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에 위치한 남양유업 나주공장이 최근 낙농진흥회에 감산(減産) 계획을 통보했다.

남양유업은 기존 직송농가와 생산자조합(낙농조합), 낙농진흥회 등 3곳을 통해

전국적으로 하루 900~1000여 t의 원유를 수거, 각종 유제품을 생산해 왔다. 납품비율은 대략 직송농가 60t, 생산자조합(낙농조합) 300t, 낙농진흥회 87t(전남생산분 67t) 등이다. 하지만 유류재고가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최근 유류업체가 한계상황에 직면하면서 낙농진흥회를 통해 남양유업 나주공장에 원유를 납품하던 전남 낙농가에 불통이 튀었다.

남양유업은 원유 잉여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직송농가에는 9%, 생산자조합

(낙농조합)에는 25%를 줄이고, 낙농진흥회에는 '100% 감축'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낙농진흥회와 계약해 남양유업 나주공장에 원유를 공급하던 나주 17농가 등 전남지역 원유 생산 70여 농가가 직격탄을 맞아 한 방울의 원유도 나주공장에 납품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다. 낙농진흥회는 정부예산 추렴기관으로 전국 낙농가들의 생산량 보호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낙농진흥회는 지난 30일 남양유업 나주공장 측과 재계약 협상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됐다. 전남지역 400

여 낙농가들은 1일 오후 1시 남양유업 나주공장 앞에서 무기한 집회에 들어갈 방침이다.

(사)한국낙농육우협회 박석오 전남도지회장은 "용도변경과 각종 혜택을 받은 남양유업 나주공장이 지역의 원유를 거부한다면 광주·전남지역 시장에서 철수해야 마땅하다"고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한편 전남지역 낙농가는 나주 80여 농가를 비롯해 모두 400여 농가로, 1일 400여 t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kwangju.co.kr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도가니' 피해자 7명 국가 상대 소송 패소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법원 "소멸시효 지났다"

영화 '도가니'로 널리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고, 증거가 부족해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2005년 6월인데, 손해배상 소송은 이보다 5년이 훌쩍 넘긴 시점에 제기됐다"며 "국가배상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9년에 성폭력 피해를 당했

다고 주장했던 원고 2명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 등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교육권·학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부분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교육부 등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인화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부실로 성폭력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2년 3월 소송을 냈다.

변호인들은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상해로 인정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만 판단해 유감이다"며 "반드시 항소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처음부터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책임이 없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항소 하겠다" 지난 30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의 변호인들이 선고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수철·김영미 변호사. /연합뉴스

'졸피뎀 복용'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항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32·본명 이예미)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에이미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

찰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여·34)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당시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이었다. 함께 기소된 권씨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27 해질 18:17
 맑음 12:46 흐림 23:20

신선한 가을 날씨
 동해북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기장지리에 들어 대체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맑음 16/26 보성 맑음 12/25
 목포 맑음 16/25 순천 맑음 16/27
 여수 맑음 18/23 영광 맑음 15/26
 나주 맑음 13/27 진도 맑음 15/25
 완도 맑음 16/26 전주 구름많음 16/26
 구례 맑음 12/27 군산 구름많음 15/24
 강진 맑음 13/26 남원 구름많음 14/25
 해남 맑음 14/26 흑산도 맑음 17/23
 장성 맑음 13/22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남부	북동~동 0.5~1.5	동~남동 0.5~1.0
남해 서부	북동~동 1.0~2.0	동~남동 0.5~1.5
남해 남부	북동~동 1.0~2.0	북동~동 1.5~2.5

◇생활지수
 식중독 58
 운동 40
 빨래 70

◇주간 날씨

날짜	2(목)	3(금)	4(토)	5(일)	6(월)	7(화)	8(수)
날씨	☁	☁	☀	☀	☀	☀	☀
기온	16/25	16/24	21/25	13/25	14/25	12/25	13/26

남성 57% "한번 이상 성매매 경험"

성매매 업소 여성 종사자 수 3년 새 5103명으로 늘기도

성매매를 근절하려는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0~2013년 전국 성매매 집결지 내 성매매 업소와 종사 여성 수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김희정 장관)는 지난 30일 오후 2시 서울여성플라자에서 '매매방지 정책 10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의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10개 업소 이상 밀집 지역) 실태 조사 결과 성매매 업소 수는 2010년 1806개에서 2013년 1858개로 52개(2.9%) 늘었다. 또 종사 여성 숫자도 4917명에서 5103명으로 186명(3.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전인 2002년 조사에 비해서는 집결지, 업소, 종사 여성 숫자가 모두 약 36~44% 감소했다. 아울러 성인 남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성매매 불법성에 대한 인식 수준을 조사한 결과 2009년 69.8%에서 2013년에는 93.1%로 큰 폭으로 올랐다.

한편 남성 답변자 가운데 56.7%(680명)가 평생 한 번 이상 성 구매 경험이 있었다고 답했으며, 27.2%(326명)는 최근 1년간 성 구매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성매매 피해자 15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 가족 해체와 가난, 가정 내 학대 10대에 성매매 업소로 유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때문에 대상자 상당수가 학업 중단으로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알선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조사한 결과 '조건만남 서비스 유행'이 전체의 94.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메인 화면에서 성인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35.2%로 대부분은 곧바로 메인 화면을 노출하거나 로그인 화면을 표시했다. /연합뉴스

24면 발행·호남 최대부수 광주일보 062-222-8111

2014 무인 황토갯벌 1m³의 가치 황토갯벌축제

2014. 10. 12(일) ~ 14(화) 3일간 무안생태갯벌센터 일원

KBS 전국노래자랑 2014. 10. 14 (화) 13시 ~ 15시 30분

사회자: 송해
 초대가수: 김수희, 김혜연, 강진, 강민주, 김기하